

# 2007학년도 4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 1~4교시 정답 및 해설

### • 1교시 언어 영역 •

1	3	2	3	3	2	4	3	5	2
6	2	7	5	8	4	9	1	10	4
11	1	12	3	13	1	14	5	15	2
16	5	17	4	18	2	19	5	20	1
21	5	22	1	23	3	24	4	25	5
26	4	27	2	28	5	29	2	30	5
31	4	32	3	33	5	34	4	35	2
36	5	37	4	38	4	39	3	40	2
41	2	42	1	43	1	44	4	45	5
46	5	47	3	48	3	49	4	50	1

### [듣 기]

**<1번>** 이제 수업의 일부를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보고 있는 위 사진은 조선 시대 해시계인 '양부일구'입니다. '양부일구'는 글자 그대로 하늘을 보고 있는 솔모양의 해시계라는 뜻입니다. '양부일구'는 시계판이 모눈종이처럼 그려져 있는 '시반'과 해 그림자를 만드는 '영침'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 해시계로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절기와 시간을 알 수 있었는지 알아보까요? 아래 그림을 보세요. 아래 그림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나타낸 그림입니다. 현재 시반에 영침의 그림자가 비춰져 있습니다. 이 그림자의 끝 A가 가리키고 있는 시각은 동지 오후 2시를 나타냅니다. 어떻게 아냐구요? 우선 영침의 그림자 끝 A가 만나는 곳에서 가로로 오른쪽을 따라 끝까지 가면 한자로 '동지'라고 적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절기가 '동지'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지요. 바로 이렇게 가로로 그어져 있는 선을 절기선이라고 하며, 겨울에서 여름으로 갈 때는 시반의 오른쪽에 적힌 절기를 읽고, 계절이 여름에서 겨울로 갈 때는 시반의 왼쪽에 적힌 절기를 읽습니다. 이번에는 시각을 알아보까요? 영침의 끝과 일치하는 선은 정오 12시를 나타내는 시각선입니다. 이 시각선을 경계로 왼쪽은 오전, 오른쪽은 오후 시간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 선을 중심으로 좌우에 짧은 시각선이 15분 간격으로, 긴 시각선이 2시간 간격으로 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A가 가리키는 시각은, 영침을 중심으로 오른쪽에 있으니까 오후이고, 정오부터 2시간을 지난 긴 시각선 위에 있으니까 오후 2시로 읽는 것이죠. 그럼 같은 방식으로 계절이 겨울에서 여름으로 가고 있고, 영침의 그림자 끝이 B에 있을 때라면 해시계가 나타내는 절기와 시각은 어떻게 될까요?

**1. [원리 적용하기]**

**[출제의도]** 설명을 듣고 원리를 적용해 보는 문제이다.

**[해설]** 계절이 겨울에서 여름으로 가고 있다고 했으므로, 그림자의 끝 B가 가리키고 있는 절기선(가로선)의 오른쪽을 따라 가서 현재 절기를 '대한'으로 읽어야 하고, B가 영침을 중심으로 두 번째 긴 시각선(2시간 간격)에 있으므로 현재 시각을 정오(12시)에 4시간을 더한 오후 4시로 읽어야 한다.

**<2번>** 이번에는 아버지와 딸의 대화를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딸 : 아빠, 신문에 보니까 이번 소비자 물가지수 품목에서 세숫대야, 필름 같은 품목이 탈락하고 전자 사전, 이리닝 이용료 같은 품목이 추가되었다고 하는데, 소비자 물가지수가 도대체 무얼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 응, 소비자 물가지수란 소비자가 구입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 변동을 나타낸 수치야. 이 수치를 보면 그동안 물가가 얼마나 변동이 있었는지 알 수 있지. 게다가 물가 안정책을 마련하는 데도 쓰일 수 있어.

딸 : 그렇구나. 그런데 왜 어떤 품목은 빠지고 어떤 품목은 추가되는 거죠?

아버지 : 그건 시대 흐름에 따라 소비나 유통 구조가 변화하기 때문이야. 다시 말하면 세숫대야, 필름 같은 품목은 이제 현실적으로 일반 소비자들의 관심에서 멀어졌다는 뜻이고, 반대로 전자 사전, 이리닝 이용료 같은 품목은 정보 사회로 접어들면서 소비자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생겼다는 뜻이지.

딸 : 네, 그렇겠네요. 음, 그렇다면 그동안의 소비자 물가지수 품목을 꼭 살펴보면 시대에 따라 소비의 흐름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도 알 수 있겠네요?

아버지 : 그래, 맞아. 일제시대부터 소비자 물가지수를 산출했다니까 그 품목만 살펴봐도 그동안의 그러한 변화상을 꼭 살펴볼 수 있겠지?

딸 : 와! 일제시대부터 조사를 했으니까 그간 어떤 품목이 조사 대상이었던지 궁금해지는데요?

아버지 : 그래? 그럼 우리 함께 일제시대부터 찾아 볼까? 혹시 우리 딸이 모르는 품목이 있으면 이 아빠가 설명도 해 주면서 말이야.

**2. [사실적 정보 확인하기]**

**[출제의도]** 대화에서 언급된 내용을 찾는 문제이다.

**[해설]** 대화에서 ③의 소비자 물가지수를 조사하는 주기는 언급되어 있지 않다. ①과 ②는 아버지의 첫 번째 말에서 확인할 수 있고, ④는 대화에서 '일제시대부터'라고 언급하고 있는 부분에서, ⑤는 아버지의 두 번째 말에서 확인할 수 있다.

**<3번>** 이번에는 이야기를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오늘은 원승이와 관련한 이야기 한 편을 들려 드리겠습니다. 동남아시아에 가면 원승이들이 많은데, 이 원승이들은 관광객이 던져주는 먹이를 두고 서로 다투는 것도 모자라, 먹이를 구하러 사람의 집까지 드나들 정도로 간이 큼니다. 그러나 이런 원승이들은 작은 조롱박 하나 때문에 사람들에게 쉽게 잡힙니다. 사람들은 이 원승이를 잡기 위해, 입구와 허리가 손 하나 겨우 들어갈 정도로 작고, 배는 볼록한 조롱박을 매달아 놓습니다. 그리고 이 조롱박 앞에서 원승이가 좋아하는 바나나, 땅콩 같은 것을 약 올리듯 먹다가, 다 먹지는 않고 원승이가 보는 앞에서 먹던 것을 조롱박 속에 넣고는 어디론가 사라집니다. 이때 원승이들은 사람들이 하는 모습을 근처에서 지켜보며 뺏어먹을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가, 사람들이 사라지면 얼른 다가가 조롱박에 손을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에 원승이들은 조롱박에 넣은 손을 빼려고 애쓰지만, 음식을 꼭 움켜쥐고 있기 때문에 손이 잘 빠지지 않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갑자기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 순간 원승이들은 더욱 당황하게 되고 마음이 급해져 얼른 손을 빼고 도망가려 하는데도 여전히 손이 잘 안 빠집니다. 끝끝내 음식을 손에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원승이들은 그렇게 공공대다가 사람들에게 붙잡힙니다.

**3. [교훈 추론하기]**

**[출제의도]** 이야기가 주는 교훈을 추론하는 문제이다.

**[해설]** 원승이가 끝끝내 음식을 손에 쥐고 있었던 것은 음식에 대한 욕심이 지나쳤기 때문이므로 ②가 적절하다. 즉 욕심에 대한 지나침이 결국 사람들에게 잡히게 되는 화를 불러왔다고 볼 수 있다. ①은 원승이가 다시 시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고, ④는 끝끝내 음식을 쥐는 행동이 옳은 행동은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고, ③과 ⑤는 이 이야기가 원승이의 욕심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4~5번>** 이번에는 대담의 일부를 들려드립니다. 잘 듣고 4번과 5번의 두 물음에 답하십시오.

진행자 : 이번 시간에는 자원봉사 활동 제도에 대해 하여 전문가를 모시고 말씀을 나눠 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전문가 : 네, 안녕하세요?

진행자 : 선생님, 요즘 자원봉사 활동을 하면 그 시간을 마일리지로 적립해서 상품을 살 때 할인받을 수 있게 하거나, 취직이나 입학시 가산점을 부여해 주거나 해서 자원봉사 활동을 제도화하려는 움직임이 늘고 있는데요, 이런 현상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전문가 : 네, 저는 사회가 선진화되면서 더불어 사는 삶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다 보니 생기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가 자원봉사 활동의 제도화 단계까지 이르렀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지요.

진행자 : 하지만 제도화에 따른 부작용도 많지 않을까 싶은데요?

전문가 : 네, 그렇습니다. 자원봉사 활동을 제도화하다 보니, 자원봉사 활동을 형식적이고 시간 때우기식으로 참여한다거나, 심지어는 돈으로 자원봉사 활동 시간을 거래하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원하다 보니 자원봉사 활동 시설이 부족하다는 문제점도 생기지요.

진행자 :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자원봉사 활동의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을까요?

전문가 : 그렇게 되려면 우선 참여자들의 의식부터 바꿔야 합니다. '자원'이라는 말 자체가 자발적인 참여를 전제로 하고 있듯이, 다양한 홍보 활동을 통하여 자발적으로 참여를 유도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여기에, 가족 단위의 프로그램 등 다양한 자원봉사 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게 지원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얻은 실적도 사회적 약자에게 기부할 수 있는 체제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행자 : 선생님 말씀 중에 자원봉사 활동 실적도 기부한다는 내용은 아주 신선한 내용이군요. 자원봉사 활동 제도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매우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문가 : 네, 맞습니다. 자원봉사 활동의 취지도 살릴 수 있고, 다시 또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라서, 잘만 실시되면 자원봉사 활동 제도를 정착시키는 아주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4. [말하기 방식 평가하기]**

**[출제의도]** 진행자의 말하기 방식에 대해 평가하는 문제이다.

**[해설]** 진행자는 세 번째 대화에서 의문을 제기하고는 있지만 '상반된 견해를 인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적절하지

않다. ㉠은 자원봉사활동 제도화에 대한 대담을 시작하고 있으므로 적절하고, ㉡은 제도화의 실태를 제시하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의견을 묻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은 제도화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 해결방안을 묻고 있으므로 적절하고, ㉣은 자원봉사 실적 기부가 좋다는 의견을 덧붙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5. [대담자의 생각 확인하기]

[출제의도] 대담자의 생각을 확인하는 문제이다.

[해설] 대담자는 마지막 말에서 ‘자원봉사활동의 취지도 살릴 수 있고, 다시 또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으로 자원봉사 실적 기부에 대해 강조하고 있으므로 ㉡가 적절하다. ㉠, ㉢, ㉣, ㉤는 모두 대담자가 언급하지 않은 내용이다.

[쓰 기]

6. [광고 문안 추리하기]

[출제의도] 자료를 통해 공통적으로 연상되는 광고 문안을 추리하는 문제이다.

[해설] <보기>는 인터넷 대화에서 외계어의 사용으로 어머니가 딸의 언어를 이해 못하는 장면과 교통질서를 지키지 않아서 교차로에 차들이 엉켜 나아가지 못하는 장면, 음식물을 서로 먼저 먹으려다 모두 못 먹게 쏟아버린 장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세 개의 장면 모두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것에서 생겨나는 문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보기>의 그림을 바탕으로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아름다운 사회를 만드는 길임을 알 수 있다.

7. [글쓰기 계획의 적절성 파악하기]

[출제의도] 자료를 활용하여 글쓰기 계획의 적절성을 파악하는 문제이다.

[해설] <자료 2>는 패션쇼 현장에서 지나치게 마른 모델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도한 신문기사이다. 신문기사에 의하면 마른 것에 대한 강박관념이 모델들이 거식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진정한 아름다움이란 건강한 정신과 건강한 육체의 조화에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는 의미를 추출해 낼 수 있다. 이런 의미를 좋은 성적을 내려는 운동선수에게 기초체력을 연마할 것을 촉구하는 데 활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8. [개요 작성 후 글감 활용하기]

[출제의도] 개요를 작성한 후 글감 활용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문제이다.

[해설] 해외로 유출된 문화재를 환수해야 한다는 주제로 쓴 개요이다. ‘II-4-가’는 문화재 환수 촉진 방안 중 정부의 외교적인 노력이 담겨야 하는 부분이다. 그러나 환수 과정의 정치적인 성격을 강조하는 것은 문화재 환수 촉진 방안과는 거리가 멀다.

9. [조건에 맞게 표현하기]

[출제의도] 주어진 조건에 따라 표현하는 문제이다.

[해설] ㉠은, 소설을 읽고 ‘힘’을 얻었다고 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에서 첫 번째 조건을 확인할 수 있고, ‘장마’에 지겹고 힘든 의미가 담겨 있다는 점에서 두 번째 조건을 확인할 수 있으며, ‘지루한 장마’와 ‘싱그러운 무지개’가 대조되고 있다는 점에서 세 번째 조건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은 세 번째 조건만 확인할 수 있고, ㉢과 ㉣은 세 번째 조건을 확인할 수 없으며, ㉤은 첫 번째 조건만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10. [고쳐쓰기]

[출제의도] 제시문의 잘못된 부분을 바르게 고쳐 쓰는 것을 묻는 문제이다.

[해설] 문맥을 고려하면, ‘담당하기보다’는 잘못 고쳐진 표현이므로 ‘담당하는 만큼’으로 고쳐야 한다.

11. [어법]

[출제의도] 대명사의 문법적 기능을 구체적 사례로 확인하는 문제이다.

[해설] ㉠의 ‘무엇’은 화단에 있는 꽃의 이름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의미를 담고 있으므로 <보기>의 ‘모르는 사실이나 사물을 가리키는 경우’의 사례로 적절하다. ㉡는 특별히 정해져 있는 음식이 아니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정하지 않은 대상이나 이름을 밝힐 필요가 없는 대상’을 가리키는 사례에 해당한다.

12. [어법]

[출제의도] ‘-에서’의 의미에 따른 구체적 사례를 찾는 문제이다.

[해설] a의 ‘-에서’는 ‘고마운 마음’이 ‘말씀’을 ‘드리는’ 근거가 되게 하고, d의 ‘-에서’는 ‘일’을 ‘행한’ 근거가 ‘보탬’이라도 되고자 하는 뜻’이 되게 하므로 ㄱ에 해당한다. b와 c의 ‘-에서’는 각각 ‘동창회’와 ‘도서관’이 처소가 되게 하므로 ㄴ에 해당하고, e의 ‘-에서’는 어떤 상황이 ‘죽은 부모가 살아 돌아온다’는 상황과 비교가 되게 하므로 ㄷ에 해당한다.

[현대시]

[13~16]

출전 : (가) 김영랑, 「복」  
(나) 김승희, 「만파식적(萬波息笛)-남편에게」

13. [시의 공통점 파악하기]

[출제의도] 제시된 시들의 공통점을 파악하는 문제이다.

[해설] (가)는 ‘복’과 ‘소리’의 비유를 통해 조화로운 인간관계 및 인생과 예술의 조화를 담은 작품이다. (나)는 ‘만파식적’을 소재로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대나무에 비유한 작품으로서 원만한 관계를 위해서는 아내와 남편 간의 적당한 거리가 필요함을 담고 있다. 따라서 작품의 공통점은 비유를 통해 대상 간의 조화로우음을 지향한다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14. [외적 정보 활용하여 작품 감상하기]

[출제의도] 외적 정보를 활용하여 작품을 감상하는 문제이다.

[해설] (가)는 화자가 친구 관계인 청자에게 말을 거는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것은 창과 아니리가 반복되는 구조인 판소리와 유사하고, 따라서 독백체 및 대화체로 볼 수 있다. ‘복’의 음보율은 3·4음보율로서 이것은 민요가 가진 율격과 유사하다. 또한 예술의 완성을 위해서는 ‘복’과 ‘소리’의 조화를 강조하고 있는데 이것은 예술의 완성을 위한 구성 요소들의 어울림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시적 화자는 판소리에서 북과 창이 어울림이 중요한 것처럼 인생과 예술의 조화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명창의 예를 든 것은 고수가 없으면 명창도 소용없다는 점을 드러낸 것으로서 예술 완성을 위한 힘든 노력과는 관계가 없다.

15. [시구의 함축적 의미 파악하기]

[출제의도] 시구의 함축적 의미를 파악하는 문제이다.

[해설] (나)에서 ‘불멸의 금빛 음악’은 두 개의 대나무 사이에 빈자리가 있을 때 만들어지는 위대한 예술을 의미한다. 또한 ‘불멸의 금빛 음악’은 (나)의 전체적인 맥락으로 볼 때 남편과 아내 사이에 존재하는 적절한 간격을 토대로 유지되는 원만한 인간관계를 비유한다. 따라서 ㉠ ~ ㉤ 중, ‘불멸의 금빛 음악’과 통하는 시구는 ㉢이라고 볼 수 있다. ‘숨결이 꼭 맞아서만 이룬 일’은 (가)에서 판소리라는 예술을 의미하며, ‘숨결’은 고수와 광대의 호흡을 의미한다. 나머지 시구들은 모두 ‘복’에만 관련된 시구로 볼 수 있다.

16. [작품을 감상하면서 시구의 의미 파악하기]

[출제의도] 작품을 전체적으로 감상하면서 시구의 의미를 파악하는 문제이다.

[해설] ‘더불어 살면서도 아닌 것같이’는 부부가 서로 차이점을 인정하면서도 원만히 살아가는 모습을 가리킨다. ‘간격’은 부부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심리적 거리를 의미하며 이 거리는 화자에게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투명한 빈자리’는 대나무가 소리가 나는 악기가 되기 위해 필요한 공간이면서, (나)에서 ‘대나무’는 부부를 비유하고 있으므로 원만한 인간 관계 유지에 필요한 공간으로도 볼 수 있다. ‘원생동물’은 서로의 차이점을 인정하지 않고 서로를 구속하려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서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자비처럼 서러운 음악’은 남편과 아내가 원만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에 대한 비애가 아니라 남편과 아내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음악’에 비유하면서 서로를 자비로운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을 가리킨다.

[고전산문]

[17~20]

출전 : 작자 미상, 「황새결승」

17. [등장인물의 성격 추리하기]

[출제의도] 작품 속에서 등장인물들의 성격에 대하여 추리하는 문제이다.

[해설] 이 작품 속에서 등장인물들은 우화형식을 이용하여 타락한 사회상을 비판하는 한편 당대 인간 유형의 전형을 보여 주어 인생과 사회의 단면을 압축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따오기’가 소리를 하지 않고 사또에게 미리 선물을 바치고 안심하고 있는 것은 ‘따오기’의 약삭빠른 성격을 나타낸 것이다. 따라서 ‘따오기’가 겸손한 성격을 지녔다고 보기는 어렵다.

18. [등장인물의 태도 파악하기]

[출제의도] 작품에서 등장인물의 태도를 파악하는 문제이다.

[해설] 따오기가 온갖 물건을 가지고 찾아와 자신이 유리한 위치에 서게 할 것을 부탁하자 [A] 부분에서 황새는 따오기를 ‘도시 상놈이란 것은 미련이 약차하여 사체경중(事體敬重)을 아지 못 한다’고 무시하면서, ‘송사는 곡작을 불계(不計)하고 꾸며대기에 있나니 아무쪼록 힘을 써 보려니와 칭 받고 그릇 공사 한다 하면 입장이 난처하게 되리니 이를 염려하노라’와 같이 자기 스스로 체면을 유지하려고 한다.

19. [상통하는 문맥적 의미 파악하기]

[출제의도] 작품 속에서 문맥의 의미가 상통하는 것을 묻는 문제이다.

[해설] 이 작품은 송사 사건의 발생 경과와 해결 과정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는데, 당시 이루어지던 송사의 판

결이 뇌물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것을 은근히 비판하고 있는 글이다. '서울 법관도 여자하오니'는 황새가 물욕에 어두워 잘못 판결한 것과 같이 서울 법관도 부자의 송사를 잘못 판결한 것을 말한다. 즉 황새는 소리가 좋지 않은 따오기를 ㉠의 '네 소리 가장 웅장하니 짐짓 대장부의 기상이로다'와 같이 최고의 소리로 판결한 것이다.

20. [작품의 교훈 파악하기]

[출제의도] 작품이 주는 교훈을 파악하는 문제이다.

[해설] <보기>는 우화소설과 송사소설의 특징을 언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다양하게 표출되는 갈등양상과 그 해결을 통하여 새로운 가치와 윤리의식을 도출하여 한자성어와 연결되는 교훈을 묻고 있다. 오만과 독선이 빛는 문제점과 불치하문(不恥下問)과는 서로 관련이 없으며 이 작품에서 시사하는 교훈으로 볼 수 없다.

[사 회]

[21~24]

출전 : 좌승희, 「신국부론」

21. [세부 내용 확인하기]

[출제의도] 지문에 제시된 정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4문단에서 차별화를 부정하는 방식으로 복지가 시행된다면 복지의 지속가능성이 훼손된다고 하였고, 5문단에서 이러한 가능성은 경제·사회 발전의 역동성이 약화되고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게 된다고 하였다. 즉 복지제도를 시행하는데 차별화의 원리를 부정하게 되면 도덕적 해이가 나타나게 된다.

22. [정보 확인과 적용하기]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용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위 글에서 복지제도가 지속 가능하려면 복지 재원 조달 방식이 스스로 노력하는 자들을 역차별 해서는 안 되며, 복지 지출은 자력갱생의 길로 이끌어낼 수 있도록 '스스로 돕는 자'가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더 우대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수립한 정책으로 '납부 세금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지 혜택이 많이 돌아가도록 한다.'는 제시된 내용과 거리가 멀다.

23. [구체적 사례 찾기]

[출제의도] 지문에 제시된 정보를 이해하고 그에 적합한 구체적 사례를 찾아 낼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보기>는 [A]에 나타난 '도덕적 해이 현상'에 대한 설명이다. 이 현상은 자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지 않으려는 마음가짐이나 행동, 자신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이기적 행위를 말한다. '회사원 C씨는 사고 후 생활 보조금을 신청하고 직장을 퇴직하고 직업을 구하려는 노력을 포기하였다.'에서 스스로 갱생하려는 노력은 보이지 않고 계속 안주하려는 태도를 보이므로 회사원 C씨의 행위는 '도덕적 해이'에 해당한다.

24. [문맥적 의미 파악하기]

[출제의도] 글 속에 쓰인 어휘의 문맥적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두다'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갖는데, ㉠의 경우는 '행위의 준거점, 목표, 근거 따위를 설정하다.'의 의미를 갖는

다. 이에 해당하는 용례는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진다.'와 같은 것이 있다.

[과 학]

[25~27]

출전 : 이기영, 「자연과 물리학의 숨바꼭질」

25. [사실적 정보 확인하기]

[출제의도] 글에 제시된 사실적 정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제시문은 사람의 눈의 기능과 구조를 설명하면서 색과 명암을 구별할 수 있는 원리를 소개하고 있다. 이때 사람이 물체를 볼 수 있는 것은 '빛'때문인데 망막에는 빛의 자극을 받아들이는 시신경 세포가 존재한다. 시신경 세포는 모양에 따라 '원추세포'와 '막대세포(간상세포)'로 구분하는데 원추세포는 색을 인식하는 기능을, 막대세포는 '로돕신'이라는 물질이 있어 명암을 인식하는 기능을 한다. 막대세포는 어두운 곳에서 초록색 빛을 더 민감하게 인식하게 되는데 이 때문에 비상구의 표시 색을 초록색으로 한 것이다.

26. [공통점과 차이점 확인하기]

[출제의도] 대상 사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색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원추 세포이고 명암을 구분할 수 있는 것은 막대 세포이다.

27. [다른 대상에 적용하여 파악하기]

[출제의도] 다른 대상에 적용하여 원리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카메라와 눈의 시각구조는 매우 유사한데 '수정체'와 '망막'에 해당하는 것은 카메라의 볼록렌즈와 필름이다.

[인 문]

[28~31]

출전 : 강만길, 「역사를 위하여」

28. [내용 추론하기]

[출제의도] 지문에 제시된 정보를 바탕으로 용어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위 글에서 역사가는 자신과 자기 시대의 기준으로 후세 사람들에게 어떤 참고가 될 만한 일과 될 만하지 않은 일을 가려내어 기록하는 사람이지만 미래를 예견하는 사람은 아니다.

29. [글쓴이의 견해 파악 및 적용하기]

[출제의도] 지문에 제시된 '글쓴이'의 견해를 파악하여 다른 견해에 적용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보기>는 실증주의 사관의 입장으로 개인의 관점을 제거하면 사료로부터 획득한 사실들에서 객관적인 진리를 얻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위 글의 글쓴이는 시대와 상황에 따라 역사의 의미가 달라진다고 하였다. 따라서 사료 자체로 역사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는 관점은 글쓴이의 견해와 거리가 멀다.

30. [세부 정보 확인하기]

[출제의도] 지문에 제시된 정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과거에 일어난 일들 중에서 기록해 둘 만한 중요한 사실을 가려내는 사람의 생각과 처지에 따라 역사는 다를 수 있다. 즉, 역사의 의미는 시대와 상황에 따라 평가 기준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전혀 다른 뜻으로 해석되기도 하는 것이다.

31. [문맥적 의미 파악하기]

[출제의도] 문장 속에 쓰인 어휘들의 문맥적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구별(區別)하는'은 '종류에 따라 갈라놓는'의 의미이다. 여기서 '가려내는'은 '분간하여 추리다'의 의미이므로 '선별(選別)하는'이 바뀌 쓸 말로 적합하다.

[현대소설]

[32~35]

출전 : 황순원, 「너와 나만의 시간」

32. [서술상의 특징 파악하기]

[출제의도] 작품을 읽고 서술상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이 작품은 전쟁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에서 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고 행동하는가를 통해 인간 존재의 의미를 성찰하는 계기를 만들어준다. 6.25 전쟁 중 낙오된 주 대위, 현 중위, 김 일등병, 이 세 사람은 아군을 찾아 남하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삶에 대한 희망보다는 죽음에 대한 공포에 지배당한다. 그러나 삶에 대한 욕망을 끝까지 놓지 않는 주 대위와 부상당한 주 대위를 버리지 않는 김 일등병을 통해 인간의 본능적인 생존 의지와 인간애에 대해 성찰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고 있다.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겪는 등장인물들의 사건과 심리는 간결하고 사실적인 묘사를 통해 형상화되고 있다. 또한 인물이 처한 상황과 그에 대한 심리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다.

33. [서사적 기능 파악하기]

[출제의도] 작품에 사용된 소재의 서사적 기능을 파악하는 문제이다.

[해설] '개 짖는 소리'를 통해 등장인물은 '인가가 가까이 있을 것이라는' 삶에 대한 희망을 갖게 된다. 즉, '개 짖는 소리'는 강인한 생존에 대한 욕구가 바깥으로 형상화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것을 통해 등장인물의 내면심리가 전환되는 계기가 마련된다. 즉 죽음에 대한 공포 속에서 주 대위가 들은, 끝까지 삶에 대한 의지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의지를 다지게 하는 그 소리는 그들에게 새로운 희망의 소리로 생존에 대한 확신을 심어 주는 것이 된다.

34. [인물의 심리를 통해 내포적 의미 파악하기]

[출제의도] 인물의 심리를 통해 내포적 의미를 파악하는 문제이다.

[해설] ㉠의 바로 다음에 보면 '자기 자신도 받고 싶었다.'가 나오는데, '주 대위'가 받고 싶은 대상은 '개 짖는 소리'를 통해 얻은 삶에 대한 희망임을 추리할 수 있다. 따라서 ㉡는 마을에 도착하는 일이 '주 대위'와 '김 일등병'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인 것이 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과 ㉢은 살아남을 수 있는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기회가 되는 것이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

고, ②는 오히려 '주 대위'가 삶에 대해 포기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므로 적절하지 않다. ⑤는 삶의 희망과 관련이 없는 진술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35. [연상되는 장면의 이유 파악하기]

[출제의도] 특정 상황에서 연상되는 장면을 떠올리는 이유를 파악하는 문제이다.

[해설] [A] 장면에서 '김 일등병'은 지친 몸에 자포자기하고 있는 상태이면서 죽음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주 대위를 원망하고 있지만, 주 대위의 권총이 주는 위협 때문에 비틀거리는 걸음이나마 걸음을 옮겨 놓고 있다. 그러다가 삶의 희망을 가져다주는 '개 짖는 소리'를 들으면서 희망을 갖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보기>의 '만도'와 '진수'가 서로 힘을 합해서 집으로 돌아가는 장면을 떠올렸다면, '김 일등병'에게는 '주 대위'의 행동이 서로가 살 수 있게 협력하고 있는 행동으로 느꼈다고 볼 수 있으므로 ②가 가장 적절하다. 이 장면은 '김 일등병'이 '조급하게 서둘렀다'거나, '부모님'을 떠올리는 상황이 아니다. ④의 경우는 부조리한 상황과 관련이 없으므로 역시 적절하지 않다.

[고전복합]

[36~40]

출전 : (가) 원천석, 「옛거울(古鏡)」  
(나) 김성기의 시조  
(다) 피천득, 「종달새」

36. [작품의 공통점 파악하기]

[출제의도] 작품의 공통점 파악 능력을 묻는 문제이다.

[해설] (가) 거울이 먼지에 덮여 있어도 자체의 본성은 변하지 않듯이 자신도 지금은 초야에 버려진 몸이지만 본성은 변하지 않고 있음을 사물(거울)에 빗대어 쓴 작품이다. (나) 굴레 벗은 천리마는 아무리 길들이려 해도 그 본성을 바꿀 수 없다는 것으로 세속적인 명리에 길들이질 수 없는 본성이 주제이다. (다) 조롱 속의 종달새는 갇혀 있어도 그 본성은 변하지 않고 제 울음을 운다는 것이다. 즉 (가), (나), (다) 모두 다른 사물에 빗대어 변하지 않는 본성이 있음을 표현하고 있다.

37. [시어 이해 및 작품 감상하기]

[출제의도] 시어 이해를 통해 작품을 감상하는 능력을 묻는 문제이다.

[해설] 미인의 단장을 돕던 거울이 버려져 먼지만 쌓인 채 아무도 찾는 이가 없는 상황을 표현하여 화자의 안타까움을 드러내었다. 자신의 포부를 펼칠 수 없는 외적 현실을 '먼지 털고 광을 내는 한 사람이 없었네.' 라는 시구를 통해 표현하고 있다. 그러므로 '먼지 털고'의 주체는 화자 자신이 아니라, 먼지에 덮여 있지만 자신의 밝은 본바탕은 변치 않았다는 것을 알아줄 외부에 있는 '한 사람'인 것이다.

38. [함축적 의미 파악하기]

[출제의도] 함축적 의미를 파악하여 내용을 연결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이 의미하는 것은 천리마가 '조족 삶은 콩'에도 자신의 본성을 변화시키지 않고 지킨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다)의 '종달새'가 비록 조롱(鳥籠)에 갇혀 있어도 자유로운 본성을 잃지 않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구절을 찾아야 한다.

39. [작품의 관점에 따라 다른 작품에 적용하기]

[출제의도] 다른 작품의 내용과 연계하여 작품을 이해하는 능력을 묻는 문제이다.

[해설] (나)의 천리마는 '조족 삶은 콩'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자유로운 본성을 잃지 않는 존재이다. 반면 (다)의 앵무새는 자신의 본성과 자유를 망각하고 감금생활에 적응하며 인간의 말을 흉내 내며 살아간다. 그렇다면 (나)의 천리마의 입장에서 (다)의 앵무새에게 해 줄 수 있는 말은 '길으로 흉내만 낸다고 해서 그 내면까지 바뀌는 건 아니다'라는 뜻의 말이다.

40. [수필의 서두에 나타난 형식 파악하기]

[출제의도] 수필의 서두쓰기에 나타난 형태를 구분하여 적용하는 문제이다.

[해설] (다)의 [A]는 대화체로 시작하고 있다. 또한 '그날 밤 나는 책을 읽다가 아까 친구 집에서 한 말을 뉘우쳤다.' 라는 문장에서 고백적 형식을 볼 수 있다.

[예 술]

[41~43]

출전 : 진중권, 「미학 오디세이 1」

41. [사실적 정보 확인하기]

[출제의도] 제시문을 읽고 그 내용을 올바르게 이해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이집트 예술의 특징은 대상을 가장 온전한 형태로 보여주는 것이다. 신왕국의 벽화에서 보듯이 나무를 측면으로 표현한다든가 연못에 있는 물고기를 정면에서 본 것처럼 그리는 것도 모두 이집트 예술의 특징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추상 충동이 발달하게 된 것은 이집트의 척박한 자연 환경 속에서 그들이 불안감을 극복하기 위해서이다. 또한 온전한 모습을 갖추어야 영혼도 온전하다는 내세관이 반영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회화적 특징은 한 사람이 여러 곳을 이동하면서 보이는 장면을 한 화면에 담아낼 때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한 눈에 보이는 장면을 한 폭에 담았다는 진술은 잘못된 것이다.

42. [정보의 중심내용 적용하기]

[출제의도] 주어진 내용과 관련해서 구체적 자료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묻는 문제이다.

[해설] [A]부분에서 이집트 벽화나 회화에서는 인간의 특성은 얼굴은 옆면을 향하고, 상체는 정면을 향하며 발은 옆을 향할 때 인물의 특성이 잘 드러난다고 한다. 따라서 정면을 바라보고 있는 그림은 [A]에서 주어진 내용과는 거리가 멀다.

43. [문맥적 의미 파악하기]

[출제의도] 생략된 정보를 문맥의 흐름에 의하여 추리하는 문제이다.

[해설] 이집트인들은 사후세계의 영원한 삶을 중시했기 때문에 항상 완전한 형태를 중요시했다. 저 세상에서 영원히 살아가려면 두 팔, 두 다리가 성한 모습이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만약 한 팔이 몸통에 가려 안 보이면, 그 사람은 외팔이로 살아간다는 것이다. 이러한 내세관은 예술에서도 반영되어 아름다움보다는 대상의 완전성을 표현하게 된 것이다.

[언 어]

[44~47]

출전 : 김미형 외, 「인간과 언어」

44. [서술상의 특징 확인하기]

[출제의도] 글의 서술상의 특징을 알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제시문은 언어의 표현 내용을 '지성의 언어'와 '감성의 언어'로 구분하여 언급하면서 두 요소가 언어적 성숙을 위하여 반드시 연마해야 할 사항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연마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면서 사례를 통해 그 타당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또한 핵심 개념인 '지성의 언어'와 '감성의 언어'가 지닌 의미를 설명하면서 이 둘이 조화되어야 올바른 언어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45. [판단 근거의 적절성 파악하기]

[출제의도] 글을 읽고 보인 판단의 근거가 적절한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지성과 감성은 모두 인격과 개성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로서 하나의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개인의 인격을 성숙하게 한다는 의미이며, 나아가 언어적 성숙을 위해서는 지성과 감성을 모두 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변화가 심하고 지식의 양이 많아진 요즘 세상에서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표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표현보다 듣기가 더 중요하다는 내용은 어느 곳에도 언급되어 있지 않다.

46. [구체적 사례 제시하기]

[출제의도] 편협한 사고에 의해 올바른 이성과 지성의 언어를 구사하기 어렵게 된 경우가 아닌 사례를 찾을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대화를 할 때 욕설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표현은 보편적이고 당위적인 사실의 표현이지 편견이나 선입견, 고정관념에 사로잡힌 표현은 아니다.

47. [어휘의 사전적 의미 파악하기]

[출제의도] 어휘의 사전적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문제이다.

[해설] '빠지다'는 <보기>에서처럼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의 문맥적 의미를 파악하여 이 단어가 <보기>에 제시된 여러 개의 뜻 중에서 어떤 의미로 문맥 속에 존재하고 있는지를 파악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빠지다'는 '차레를 거르거나 일정하게 들어 있어야 할 곳에 들어 있지 아니하다.'를 의미하기 때문에 ㉠과 가장 가깝다.

[기 술]

[48~50]

출전 : 박재광, 「하늘을 나는 우리나라 최초의 로켓병기 '주화'와 '신기전」, 『과학기술』 2007년 1월호

48. [사실적 정보 확인하기]

[출제의도] 신기전의 주요 부분의 기능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지난 1993년 대전 엑스포가 열렸을 때 세계의 주목을 받았던 우리나라 최초의 로켓탄인 '신기전'을 소개하는 글이다. 신기전의 각 부분 중, 로켓의 추진체 역할을 하는

부분은 약통이다. 약통 속에 재였던 화약에 점화선을 통해 불을 붙이면 화약이 타 들어가면서 연소 가스를 발생시키는데, 이 연소 가스가 약통의 아래 부분에 뚫어 놓은 구멍을 통해 분출되면서 작용과 반작용의 원리에 의해 추진력이 생겨난다. ㉠는 발화통, ㉡는 도화선(약선), ㉢는 약통, ㉣는 점화선, ㉤는 날개이다.

#### 49. [반응의 적절성 파악하기]

**[출제의도]** 대신기전의 기능과 역할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대신기전은 실제 전투 상황에서 화차를 이용하여 한번에 100발을 쏠 수 있었다. 점화선에 불을 붙여 추진력이 생겨나면 연기와 불꽃을 일으키며 적진을 향해 날아가 폭발하게 된다. 연기와 불꽃, 폭발음 등은 적군에게 상당한 공포감을 주었을 것이다. 또한 야간 전투 시에는 불꽃이 어둠을 밝혀 적진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발화통은 적진에 거의 다가갔을 무렵이나 도중에 폭발하여 내장되어 있던 쇳조각이 사방으로 흩어지며 적군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주어 큰 효과를 거두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신기전의 몸체인 대나무의 아래 부분에 달린 날개는 신기전이 목표를 향해 안정적으로 날아갈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목표물에 명중하도록 겨냥하는 데 도움을 준 것은 아니다.

#### 50. [구체적 사례 찾기]

**[출제의도]** 신기전이 발사되는 원리를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신기전이 발사되는 원리는 작용과 반작용의 원리로 설명할 수 있다. 약통의 화약이 타면서 발생하는 연소 가스가 약통의 아래 부분에 뚫어 놓은 구멍을 통해 분사되면서 작용과 반작용의 원리에 의해 추진력이 생긴다. 고무풍선을 불었다가 입구 부분을 잡았던 손을 놓으면 바람이 다시 빠져나오면서 추진력이 생겨나게 되는데, 이 실험을 통해 작용과 반작용의 원리를 쉽게 설명할 수 있다. ①은 작용과 반작용의 원리, ②, ④는 관성의 법칙, ③은 가속도의 원리, ⑤는 질량에 의한 가속도의 원리이다.